

# 흥겨운 문화축제... 후끈 달아오른 주말 도심

### ■ 2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중 인형극 '마리오네트' 수다 퍼포먼스·마임 공연

### ■ 전통문화관 토·일 상설공연 광주예술진흥회 초청 무대 무형문화재 추모 제례악 연주

초여름의 길목, 광주 도심 곳곳에서 흥겨운 축제가 6월의 문을 연다.

먼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2일 성공적인 파격을 감행한 전국의 거리예술가들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일대에 불러 모은다.

이날 눈여겨볼 공연으로는 바다가 아닌 공중에서 펼쳐지는 인형극을 탄생시킨 '바라딘'의 '한여름밤의 마리오네트', 화려한

빛을 내뿜는 LED 마스크를 쓰고 역동적인 모션으로 공연하는 드림 퍼포머 '메드케이'와 광주 '조이댄스'가 함께 펼치는 복합퍼포먼스 '메드케이 드림쇼', 사투리와 표준말을 공연의 소재로 다루며 일종의 수다도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서울사람'의 '궁금해?', 비눗방울로 타임머신을 만들어 어린 시절 동심 여행을 떠나는 'MC선호'의 '코믹버블매직쇼'가 있다.

관객을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만드는 객석과의 소통도 다양해졌다. '바라딘'의 '한여름밤의 마리오네트' 공연 관람 후에는 관객이 직접 마리오네트를 조종해 볼 수 있으며, '서울사람'의 '궁금해' 수다 퍼포먼스는 공연자와 함께 관객들이 사투리로 소통하며 공연을 만들어 간다.

또한 풍선아트와 마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제이로프'의 'That's okay', 마임이스트 '정영필'과 함께 마음을 배워 볼 수 있는 공연 '호흡' 등 거리 곳곳에 시민들의 참

여를 기다리는 공연들이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매직 난버블 퍼포먼스·파이어댄스·놀이극·자유참가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총 5개의 무대 곳곳에서 30회 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62-223-0410.

2일(오후 3시) 전통문화관(서석당)에서 펼쳐지는 토요상설공연은 '광주예술진흥회'(대표 윤점순)를 초청해 '좋다 아라리아' 무대를 선보인다.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의 해금·대금 연주와 우아한 춤사위를 표현한 태평무·교방무, 가야금병창·국악가요 등 퓨전 국악 무대가 펼쳐진다. 끝으로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가야금병창으로 들려주고, 국악가요 '난감하네'를 관객들과 함께 즐기며 이날 공연을 마무리한다.

광주예술진흥회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공연을 통해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의 문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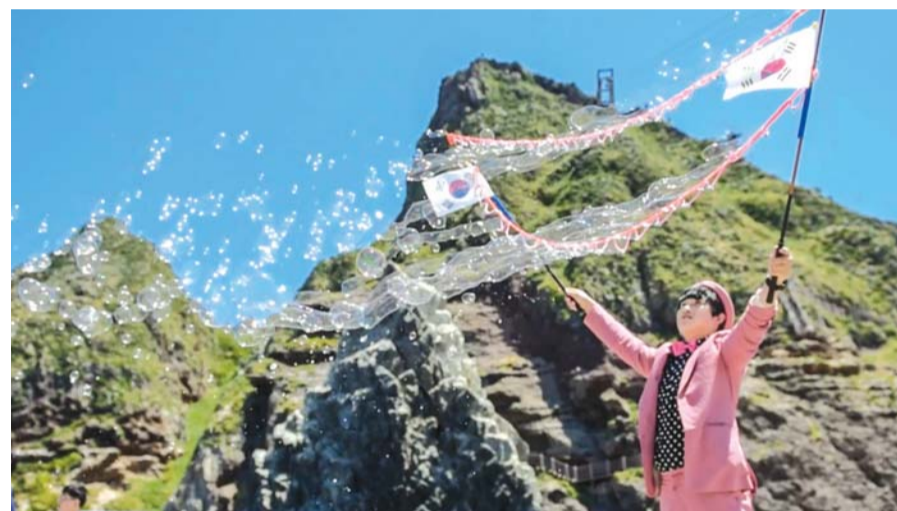
솔 발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은 최소형(연출), 임대의(장구), 송은영(소리), 조은혜(해금), 심은지(대금), 박소진(무용)이 출연한다.

3일(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일요상설공연은 무형문화재의 열을 가리는 추모 공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故 무형문화재 열을 가리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모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공대일을 비롯한 위패 15위(가능보유자 5위, 예능보유자 10위)를 모시고 유교식 제례식으로 치러진다. 광주향교 제관이 집전하고 전라남도립국악단 수석단원 양신승 외 8명이 제례악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추모공연에서는 전통문화관에 입주해 있는 이임례 등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이 찻집극 중 '길뉘음'을 바친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재 기자 ej621@kwangju.co.kr



6월 첫 주말을 맞아 5·18민주광장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가 열린다. MC선호가 비눗방울을 통해 어린시절로 여행을 떠나는 '코믹버블매직쇼'를 선보이고 있는 장면(왼쪽)과 광주예술진흥회의 공연 모습.



MC선호가 비눗방울을 통해 어린시절로 여행을 떠나는 '코믹버블매직쇼'를 선보이고 있는 장면(왼쪽)과 광주예술진흥회의 공연 모습.

## 문인화가 박종희 초대전

금봉미술관 2일~30일



▶ '마이산'

그림과 글씨의 어우러짐으로 감동을 전하는 문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은 6월 기획전으로 보성출신 문인화가 창현(創玄) 박종희 초대전을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문인화는 인문학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정통 문인화 뿐 아니라 전통의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온 박 작가는 과거 문인화의 맥을 잇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화폭에 담으려 고군분투해왔다.

화폭을 장악한 검은 색감이 인상적인 '산거(山居) 스님 2', 먹으로 대담하게 묘사한 산과 분홍빛 화려한 꽃나무, 나뭇배 위 낚시하는 사람이 어우러진 '춘가임

수조(春江垂釣)', 절경 아래 열을 위에서 홀로 낚시하는 이의 모습이 인상적인 '독락(獨樂)', 푸른빛의 산봉우리, 회색빛 하늘, 눈내리는 풍경과 등산객의 모습이 절묘하게 만난 '마이산' 등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까지 15차례 개인전을 가진 박 작가는 동아미술제 대상(1981), 제8회 대한민국미술인의 날 문인화 본상(2014) 등을 수상했으며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에는 파리메타노아아화랑 초대전 가졌으며 파리 퐁피두센터 광장에서 10m 대형 화폭에 일필휘지로 소나무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전시 초대는 2일 오후 5시다. 문의 062-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혼성현실'...미디어아트 릴레이 기획전

미디어 338 레지던스 입주작가 8월 11일까지

광주문화재단은 8월 11일까지 미디어 338에서 미디어아트레지던스 기획전 'Hybrid reality(혼성현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레지던스 7기 입주작가 김혜경, 문창환, 신창우, 최하람, 풀바주카, 디아렐림(안유자, 변수진)이 공동 제작 'Hybrid reality' 아래 각각의 주제를 갖고 참여한다.

릴레이 전시의 시작(9일까지)은 신창우 작가의 개인전 '상상想像(imagination)'이다. 총 5작품에서 '한계가 없는 상상과 현실의 모든 것이 창조하는 상상의 공간'을 보여준다. 오프닝은 1일 오후 5시.

이어지는 두 번째 전시는 문창환, 최하람 작가의 그룹전 'Rumination- 1. 반추 2. 심사 숙고 3. 숙고의 결과'로, 오는 13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무수한 사건들과 함께 흘러가는 일상에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일은 미래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오프닝은 15일 오후 5시.

릴레이의 마지막은 그룹전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김혜경, 풀바주카, 디아렐림(안유자, 변



신창우 작 '탄생'

수진 작가)의 'Hybrid reality(혼성현실)-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들다.' 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합해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만들어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와 가상의 정보를 결합한 HR(Hybrid reality)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AR(증강현실)과 몰입감을 전해주는 VR(가상현실)의 장점을 더해 실감나는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오프닝은 7월 13일 오후 5시.

무료 관람.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남도국악원 '2018 금요국악공감' 첫 공연 오늘 국악연주단 합주·전통춤 등 선보여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의 기억합주 '수제천'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1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2018년 금요국악공감 첫 공연의 막을 연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연주로 시작될 올해 첫 공연인 '국악의 향연'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꾸민다. 성악·국악·무용 전통예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기억합주 '수제천', 전통춤 '궁중검무',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북놀이 '진도북놀이', 전통춤 '연흥무', 민요 '새타령', 타악 '삼도설장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8년 금요국악공감은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열리며 총 31회에 걸쳐 진

행된다.

매월 홀수 짝주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과 서울·남원·부산 국악원 간의 교류 공연, 그리고 짝수 짝주는 명인·명무·명창 및 유명 연주단체를 초청해 전통을 담고 미래를 그려내는 전통 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요국악공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61-540-4031-3)로 문의하면 된다.

/전재 기자 ej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